

청소년의 자율적 행동 역량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권일남** · 김태균***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핵심역량 중 자율적 행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성을 측정하는데 있다. 실험 집단 32명과 통제집단 3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개발한 자율적 행동 역량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사전-사후 검증을 실시하였다. 총 6회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첫째, 자율적 행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과 비참여 청소년을 비교한 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의 경우와 비참여 청소년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하위영역별 사전-사후 검증 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의 경우 목표와 과제수립의 하위영역인 수행에서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권익의 한계알고 요구하기의 하위영역인 욕구와 권리주장에서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의 경우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함의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자율적 행동, 역량,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

* 이 논문은 2010년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과제인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 수련시설기반 프로그램 시범사업-자율적 행동’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교신저자, choungji@hanmail.net.

***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전임강사 youth@hyo.ac.kr.

I. 서 론

21세기의 시대적 도전과 새로운 국가적 과제의 실현에서 항상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은 얼마나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이러한 인재가 사회 각 분야에서 제 역량을 발휘하는 기회를 얻고 동시에 제공하며 각자의 필수적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느냐의 여부일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의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엄청난 외형적 발전을 도모하였으며 빈곤에서 삶의 질을 극대화하는 등 한민족의 저력을 유감 없이 발휘한 세기적 가능성을 충분히 발현하여 왔다. 여기에는 단지 어떠한 측면의 한 부분이 큰 기여를 해 온 것이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 저마다의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해 왔으며 그러한 기능적 요소에 중요한 역할을 해 온 것이 바로 인재의 적재적소의 배치와 함께 그러한 인재의 사회적 기능이 충분히 반영되어져 왔다는 점에서 인재양성에 큰 노력을 기울였고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진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의 현 사회적 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이라는 점에서 현 시대를 적절히 이끌어 갈 유능한 인재의 확보와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방안은 국가적 차원에서 매우 유용한 과제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상에 대해서 우려를 금치 못하는 점은 선진국으로의 진입과 후발개도국의 추종에 따른 양면적 대응을 적절히 하지 않으면 발전의 미래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여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그래서 미래형 인재개발에서 역량중심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지만 그러한 역량이 지식편중성의 역량이 아닌 인간존재의 기본 가치중심의 역량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핵심역량에 대한 정의를 보면 현상이나 문제를 효율적으로 혹은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학습자(혹은 사회인)에게 요구되는 지식, 기능, 태도의 총체로 규정하기도 한다(이광중, 2003).

역량(competency)의 개념은 1970년대 기업이나 작업장과 같은 조직 차원에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평균적인 수행자들과 구분해주는 우수한 업무 수행자들의 개인적 특성이나 자질을 지칭하는 것으로 등장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핵심역량의 기준은 보는 시각과 관점에 따라서 매우 다른 형태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교육혁신위원회(2007:69)에서는 핵심역량의 주요 내용으

로 창의력, 갈등관리, 문제해결력, 협동과 봉사, 의사소통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적극적 시민성, 예술·문화적 감성 등 8개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고, 박병선(2001)은 창의적인 핵심역량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자존적 자기이해능력, 의사소통능력, 논리력, 상상력과 창의력, 문제해결력, 시민공동체정신, 리더십의 7개 항목을 제안하였는데 글로벌 인재는 불확실성, 돌발성, 전지구적 과급성 등 예측불허의 변화가 예상되는 글로벌 환경에서 변화에 예측되지 않고 변화의 주역이 되는 역량을 갖춘 사람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청소년활동분야에서는 가장 중요한 활동을 제공하며 청소년의 체험요소와 활동의 가치를 높이는 노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능이 과연 청소년의 역량을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제고시키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방향제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청소년활동을 통해서 청소년기에 갖추어야 할 역량의 요소가 무엇인지도 파악이 되지 않았으며 동시에 그 다양한 청소년기의 역량을 개념화하는 시도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청소년활동을 통해서 얻게 하려는 의미의 개념화가 모호한 상태였다.

물론 청소년활동분야에서는 국가인재양성의 중요한 과제실현의 첨병역할을 담당하면서 청소년의 부적응행동과 문제행동을 극복하고 청소년의 사회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균형 있는 성장의 수단인 청소년수련활동을 지원하고 적극적인 제공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 왔다.

청소년활동은 현장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의 확대, 청소년지도자의 양성,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의 다양화 등 제도적 지원과 정책적 안정화를 위한 각종 방안들이 모색되어 왔지만 아직도 청소년활동의 필요성과 당위성의 이해는 부족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여겨지고 있는 셈이다.

그 결과 청소년활동이 수요자인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 등에게도 아직 적극적으로 환영받지 못하는 점에는 여러 가지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근원적인 요소로는 청소년활동에 대한 명확한 개념규정이 설정되어지지 못한 점도 큰 원인이라 여겨진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청소년활동은 체험적 요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에 의미있는 기회로 자리잡은 지 오래이다. 다만 주지주의적 교육에 익숙해 온 모든 교육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교사, 학부모 등)의 외면에 의해서 청소년활동은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장애요인이라는 단견적 생각으로 인하여 청소년활동

의 효과성을 숙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여기에는 그동안 학습의 원류에 대한 오해와 학원식 교육에 익숙해 온 우리 모두가 청소년활동을 폄하하고 불편하게 인식하였던 점에서 기인하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습과 학업의 성취적 요소에서 교과와 비교과라는 구분을 하는 이분법적 개념에 매우 익숙해져 있다. 하나를 성취하려면 다른 어떤 부분에 대한 경쟁적 요소를 설정하고 이를 끊임없이 대응하게 함으로써 다른 하나를 부각시키려는 태도를 보이는데 학업성취만을 핵심으로 추구하다 보니 다른 요소는 크게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청소년활동에 대한 기존의 관념적 태도는 아직도 우호적 측면에서 이해되어진 부분이 아니었던 것이다. 특히 봉사활동이나 기타 체험활동에 대한 기대수준도 입학사정관제의 도입에 따라서 좋은 학교, 우수한 대학입학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것도 현실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현실에서 무한적 청소년활동의 기대치를 부정하면서 무관한 것처럼 여기고 있는 인식의 전환을 요청하면서 동시에 청소년활동이 학업에 단순한 보조적 수단이 아닌 학업을 이행하는데 필수적인 개인적 역량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가 수많은 형태의 청소년활동을 이행하여 왔지만 이러한 활동이 청소년에게 어떠한 의미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다. 즉 개별적 활동의 다양성이 효과적이라는 점에서는 동의하면서도 모든 활동의 효과성을 통합하여 청소년에게 유의미한 활동이 된다는 점을 각인시키는 데에는 충분하여 오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활동의 전문성을 제기할 때에는 주저할 수밖에 없었고 동시에 그저 그렇고 누구나가 할 수 있는 보편적 활동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청소년활동에 대해 국가가 필요로 하는 21세기형 인재의 상에 필요한 요소임을 재확인하고 이를 역량으로 규정하며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기회확대를 통하여 교육의 혁신과 변화를 바라는 상황으로 전환되어지고 있다.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진단한 내용을 보면 “배우는 학생을 생각하지 않고, 가르치려고만 들었다”와 “가르치는 선생님과 학교를 생각하지 않고 정부의 욕심만 앞섰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으며(천세영, 2009), 여기에는 학생의 필요와 교사의 필요, 학교의 필요를 고려하지 않은 공급자위주의 사고방식과 풍토, 문화 그리고 그러한 것에

의하여 만들어진 제도가 이를 가능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

학생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지식과 자격이 있다고 규정된 교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였고 그러한 정보는 학부모와 교장, 교감 등 관리자의 의도 그리고 교사의 지향하고자 하는 바가 적절히 버무려진 의도화된 내용을 익숙하게 받아들인 결과였던 점이다.

여기에서 창의적이고 개인의 역량을 발휘한 인재를 양성하기란 애초부터 불가능한 점이었던 각성이 점차 점증하고 있기에 교육을 통해 21세기형 인재의 양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사고방식의 전환이 그동안 경험하지 못하였던 창의적 체험활동의 미래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이를 수행하려는 시도를 펴고 있다.

동시에 입학사정관제의 도입으로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유능한 인재의 확보를 해야 함을 국가적 과제로 표방하고 있는 점도 청소년활동의 발전가능성을 더욱 증진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고 보여진다.

이처럼 청소년의 역량에 대한 개념은 아직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큰 개념이기는 하나 가소성이 있는 시기에 변화와 성장을 통해 성인기의 적절한 직업과 사회적응을 유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해 볼 수 있다.

청소년기는 지속적인 성장과 발달과정에서 개인의 발달에 필요한 자신의 능력을 습득하고 보완해 나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필수적인 능을 학습하고 배우는 것을 역량으로 규정해 볼 때 성인기에 필요한 역량과는 다소 다른 개념으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것은 지금까지 청소년기의 역량에 대한 개념화를 주로 성과 중심으로 판단한 결과 입시중심의 성적과 결과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판단하려는 시도에 익숙해져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던 점이다. 하지만 청소년의 역량은 성과중심이 아닌 그 시기의 반드시 발현해야 할 개인적 능력으로 보이주어야 한다. 잠재능력과 소질을 파악하여 자신의 역량으로 변환시키고 성인이 되어서도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을 배양하게 되는 것이 바로 청소년기의 역량을 갖춘 인재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역량에 대한 개념을 어떠한 형태로 규정하는가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형성되어질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OECD가 규정하는 DeSeCo프로젝트에서 명시한 역량의 이해를 바탕으로 청소년기에 필요한 능력을 보완해 내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DeSeCo의 역량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주관으로 2008년부터 연속사업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는 내용이며 4대 영역(지적도구활용, 사회적 상호작용, 자율적 행동, 종합적 사고력)에서 핵심역량의 연구추진체계를 구성하고 해당 지표를 개발하여 오고 있다.

청소년들이 핵심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청소년이 성장하여 성인기의 적재적소에서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습득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역량은 비단 청소년활동을 통해서만 습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행위적 성숙과정에서 학습되어지는 것이지만 청소년활동의 방향이나 목표 역시 개인의 역량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에서 출발해 주어야 한다.

물론 청소년기에 핵심역량지표는 청소년이 갖추어야 할 기초적 능력을 구성하도록 하였다는 점은 매우 의미 있는 연구이다. 이러한 틀에서 자율적 행동에 대한 능력을 수반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청소년기의 자율적 행동은 청소년기가 보여주는 정서적, 행동적 자율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인지하고 형성해 나가도록 하는 발판을 갖추는 시기라는 점에서 자율적 행동의 형성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자율적 행동은 자기 스스로의 원칙에 따라 어떤 일을 하거나 자기 스스로 통제하여 절제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청소년시기에 이러한 능력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성인이 되어서 의존적인 삶을 사느냐 주도적인 삶을 사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인간은 사회에서 타인과 함께 살아간다. 이러한 사회에서 의존적으로 살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성인이 되느냐 주도적으로 책임감 있는 성인이 되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처럼 자율적 행동역량을 청소년시기에 개발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자율성의 영역이나 개념을 명목화 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것은 개인차가 심하고 개인에 따라서도 자율적 행동에 대한 범위를 규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개발한 자율적 행동의 틀을 토대로 하여 청소년의 자율적 행동 역량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율적 행동 역량의 하위기준을 추출한다. 둘째, 자율적 행동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셋째, 개발된 프로그램의 시행 및 효과성 검증을 실시한다.

II. 프로그램의 개발

1. 자율적 행동 프로그램의 개발 절차

본 연구의 프로그램 개발 절차는 교수체계설계 모형 중 하나인 ADDIE 모형을 활용하였다. ADDIE 모형은 교수체계설계 과정의 일반적 형태를 나타낸 모형이다. 분석(Analysis), 설계(Design), 개발(Development), 실행(Implementation), 평가(Evaluation)의 5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분석(analysis) 단계에서는 청소년핵심역량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탐색하였고, 설계(design) 단계에서는 청소년핵심역량과 관련된 선행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제시한 청소년핵심역량의 구성요소 및 단계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를 추출하였다.

둘째, 개발(development) 단계에서는 추출한 구성요소를 토대로 본 연구를 위한 프로그램의 초안을 개발하였다.

셋째, 실행(implementation) 단계에서는 구성된 프로그램을 시범 실행하여 프로그램의 실행 적합성을 평가하고 전문가 집단에게 의뢰하여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여 프로그램 시안을 재구성하였다.

넷째, 평가(evaluation) 단계에서는 완성된 프로그램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구분하여 프로그램운영을 실시하여 효과성 검증을 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2. 자율적 행동 프로그램

1) 자율적 행동프로그램 개발 절차

자율적 행동의 세 가지 영역의 거시적 맥락 속에서 행동하기, 목표 및 과제를 수립하고 실천하기, 권리, 이익의 한계를 알고 요구하기를 분석한 지표별 핵심내용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김기현 외, 2008).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제시한 자율적 행동의 세 가지 영역을 기초로 프로그램

개발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청소년현장 전문가 및 연구의 2차 회의 결과 프로그램 개발에 적용을 위해서 자율적 행동의 맥락적인 접근을 통해 프로그램 개발에 적용 가능한 자율적 행동의 세 가지 영역을 제 구성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거시적 맥락 속에서 행동하기는 상황파악의 단계로, 구체적인 적용요소로는 현상이해, 예측과 원인분석 등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목표 및 과제를 수립하고 실천하기는 이행 및 시행의 단계로, 구체적인 적용요소로는 문제해결 방법 결정, 문제해결의 실행과 평가 등으로 구분하였다.

셋째, 권리, 이익의 한계를 알고 요구하기는 권리요구의 단계로, 구체적인 적용요소로는 대안제시 등으로 구분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1>와 같다.

<표 1> 자율적 행동 핵심내용 및 적용요소의 변화

청소년정책연구원 (자율적행동)		자율적행동 1차회의 수정	
영역	하위영역	핵심내용	적용요소
거시적 맥락속에서 행동하기	패턴이해	상황 파악	현상 이해
	체계이해		예측과 원인분석
	행동의 결과 인지	이행 및 시행	문제해결 방법 결정
	행동의 선택		문제해결의 실행과 평가
목표 및 과제를 수립하고 실천하기	목표 및 과제설정	권리 요구	대안제시
	계획수립		
	수행		
	평가		
권리, 이익의 한계를 알고 요구하기	흥미 이해		
	규칙과 원리 이해		
	욕구·권리		
	대안 제시		

2) 자율적 행동 프로그램의 목표 및 내용구성

청소년정책연구원의 자율적 행동의 영역을 1차 전문가 회의를 통해 수정된 내용의 프로그램의 목표 및 내용구성은 <표 2>와 같이 구성하였다.

첫째, 상황파악은 현상이해와 예측과 원인분석으로 구분하고, 현상이행의 프로그램 목표는 현상 파악, 현상에 대한 패턴이나 연관성 찾기 등으로 설정하였고, 내용으로는 정보 수집 및 분석, 정보공유, 문제현상을 통한 사례 찾기로 구성하였다.

둘째, 예측과 원인분석의 경우 프로그램목표는 예상되는 문제점 찾기, 문제핵심 도출을 통해 원인분석 등으로 설정하였고, 내용으로는 미래 예측 상상하기, 모의 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원인 분석으로 구성하였다.

셋째, 이행 및 시행의 경우 문제해결 방법 결정, 문제해결의 실행과 평가로 구분하였고, 구체적인 프로그램 목표는 문제해결 방법결정에서는 문제해결(목표달성)을 위한 과제 선정,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계획수립 등으로 설정하였고, 내용으로는 문제해결 과제선정하기, 실천계획서 작성하기, 타인스케줄 작성하기, 역할분담하기, 자원 확보하기로 구성하였다.

넷째, 권리요구의 경우 대안제시로 설정하였고, 구체적인 프로그램 목표로는 문제 원인에 대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 제시하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절차 수립하기 등으로 설정하였다.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다양한 대안 제시하기, 문제 예방 절차 만들기 등으로 구성하였다.

<표 2> 프로그램 목표 및 내용구성

핵심 내용	적용 요소	프로그램 목표	핵심키워드	프로그램	기후변화 프로그램
상황 파악	현상 이해	- 현상 파악 - 현상에 대한 패턴이나 연관성 찾기	- 정보수집 및 분석 - 정보공유 - 문제현상을 통한 사례 찾기	- 주제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 분석한 내용 공유하기 - 사회 현상과 주제 연결 시키기	- 번개치기 - 영상과 PPT를 활용한 사례 보기 - 직접 자료 찾아 발표하고 공유하기 - 지역사회와 주제 연결하기
	예측과 원인 분석	- 예상되는 문제점 찾기 - 문제핵심 도출을 통해 원인분석	- 미래 예측 상상하기 - 모의 시뮬레이션을 통한 원인 분석	- 미래에 대해 상상하기 - 변화 예측 - 문제파악 - 문제의 근본원인 찾기	-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 상상해서 그림그리기 - 상황설정을 통한 모의 시뮬레이션 놀이 - mindmap을 통한 원인 파악하기

핵심 내용	적용 요소	프로그램 목표	핵심키워드	프로그램	기후변화 프로그램
이행 및 시행	문제 해결 방법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해결목표 달성을 위한 과제 선정 -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해결 과제선정 하기 - 실천계획서 작성 하기 - 타임스케줄 작성 하기 - 역할분담하기 - 자원 확보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비전) 분명히 하기 -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목표 수립 - 목표달성을 위한 실천 계획 수립 - 타임스케줄 작성 - 역할 분담표 작성 - 자원 확보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rain Writing을 통한 과제 선정하기 - 정보찾기 - 정보 공유하기 - 실천과제 정하기 - 계획서 작성하기
	문제 해결의 실행과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기술이나 기법을 도입해서 수립한 계획 실행하기 - 결과의 옳고 그름, 잘됨과 그렇지 않음이 무엇인지 평가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수행하기 (개별, 팀별 등) - 실천내용 정리 및 기록하기 - 문제점 찾기 (절차상의 문제) - 실패한 전략 분석하기 - 목표달성도 평가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수행하기 - 실천내용 정리 - 절차상의 문제 찾기 - 실패한 전략 분석하기 - 목표달성도 평가 - 개별 및 팀별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실천하기 - 실천한 내용 기록하기 - 문제점 파악하기
권리 요구	대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원인에 대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대안 제시하기 - 문제가 재발 되지 않도록 예방절차 수립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대안 제안하기 - 문제 예방 절차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규칙 이해하기 - 민주적인 대응방법 찾기 - 자신의 역할과 권리 - 여론 형성 방법 - 민주적 참여절차 만들기 - 문제해결 가능성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리교육 - 민주적인 대응방법 교육 - 자발적인 자신의 역할과 권리 옹호 방법 찾기 - 다양한 대안제시 방법 제안하기

I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에서 개발한 자율적 행동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을 위해 실험집단, 통제집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실험집단에는 처치를, 통제 집단은 처치하지 않는 이질 비교 집단 사전·사후 검사 설계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2. 연구대상

자율적 행동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위해서 실험집단 32명과 통제집단 30명을 모집하여 운영하였다. 실험집단은 본 프로그램 참여자 중·고등학생 32명을 모집하였고, 통제집단은 본 프로그램의 운영기관인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운영하는 타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중·고등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3.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는 다음과 같았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8)에서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연구 I: 자율적 행동에 관한 생애핵심역량 측정도구 개발 연구”에서 개발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청소년의 자율적 행동의 세 가지 하위요소에 대한 측정문항 개발의 준거가 되는 측정지표를 개발하고 하위요소별 측정영역을 각각 4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거시적 맥락 속에서 행동하기는 ‘주어진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고 행동의 결과를 예측하면서 장기적으로 이득이 되도록 행동하는 역량’으로 개념화 하고 있고, 패턴 이해, 체계이해, 행동의 결과 인지, 행동의 선택 등의 측정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오답형 문항(2개 항목, 14점 만점), 행동·태도 문항(10개문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목표 및 과제를 수립하고 실천하기는 ‘스스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행하며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역량’으로 개념화 하였고, 목표 및 과제설정, 계획수립, 수행, 평가 등의 측정영역으로 1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권리와 이익의 한계를 알고 요구하기는 ‘자신에게 주어진 위치와 역할을 이해하고 스스로의 욕구와 권리를 효과적으로 주장하는 역량’으로 개념화 하고 있고, 흥미이해, 규칙과 원리 이해, 욕구·권리, 대안 제지 등의 측정영역으로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4. 분석 방법

자율적 행동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독립 2-표본 비모수 검정(Mann-Whitney의 U)을 사용하였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연구집단의 크기가 작으므로 비모수 통계방법인 Wilcoxon Signed Rank Test를 사용하여 동일집단의 사전사후검사를 비교하였다. 모든 분석의 유의수준은 $p < .05$ 과 $p < .01$ 수준으로 하였다.

5. 프로그램 운영 절차

본 프로그램의 운영은 경기도 D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운영하였고, 2010년 8월~9월에 총 6회기 프로그램을 청소년지도사, 기후전문가 초청 등으로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운영 절차는 <표 3>과 같다.

<표 3> 자율적 행동 프로그램 운영절차

회 기	프로그램 주요 내용	역량요소
1회기 2010.8.10.(토)	스스로 알아보는 기후변화, 내가 쓰는 에너지 얼마나 될까?, 우리가 먹는 한 끼 식사의 이동거리는 얼마나 될까?	현상 이해 예측과 원인분석
2회기 2010.8.14.(토)	빙고게임, 탄소제로 상상화, mindmap, 실천 계획서 작성하기	예측과 원인분석 문제해결 방법 결정
3회~4회 8.15.~8.28.	실천하기	문제해결의 실행과 평가
5회기 2010.8.28.(토)	생방송 토크쇼, 전략의 달인	문제해결의 실행과 평가
6회기 2010.9.4.(토)	기후변화에서 살아남기 공동 실천행동 프로젝트	대안제시

IV. 분석결과

1. 사전동질성 검증

자율적 행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동질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4>와 같다. 거시적 맥락의 총점은 실험집단 3.48, 통제집단 3.37, 목표와 과제 수립의 실험집단 3.16, 통제집단 2.99, 권익의 한계알고 요구하기 실험집단 3.57, 통제집단 3.33점으로 나타났고,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두 집단 간의 이질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자율적 행동 3대 영역의 사전동질성 검증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순위	U	Z	p
거시적 맥락	실험사전	32	3.48	.43	33.02	431.5	-.69	.494
	통제사전	30	3.37	.50	29.88			
목표와 과제수립	실험사전	32	3.16	.73	31.53	479.0	-.01	.989
	통제사전	30	2.99	1.05	31.47			
권익의 한계알고요구	실험사전	32	3.57	.65	34.09	397.0	-1.17	.241
	통제사전	30	3.33	.78	28.73			

이어서 자율적 행동역량 3대 영역의 하위영역별 사전동질성 검증결과 <표 5>와 같다. 하위영역별 사전동질성 검증결과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 간의 이질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자율적 행동 하위영역의 사전동질성 검증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순위	U	Z	p	
거시적 맥락	체계 이해	실험사전	32	3.41	.55	32.92	434.5	-.65	.517
		통제사전	30	3.31	.70	29.98			
	행동의 결과 인지	실험사전	32	3.61	.66	33.44	418.0	-.91	.365
		통제사전	30	3.53	.54	29.43			
	행동의 선택	실험사전	32	3.48	.47	33.36	420.5	-.85	.398
		통제사전	30	3.36	.58	29.52			
목표와 과제 수립	목표 및 과제설정	실험사전	32	3.46	1.00	32.45	449.5	-.43	.665
		통제사전	30	3.23	1.26	30.48			
	계획수립	실험사전	32	3.07	.86	32.22	457.0	-.33	.742
		통제사전	30	2.88	1.21	30.73			
	수행	실험사전	32	2.98	.66	31.56	478.0	-.03	.977
		통제사전	30	2.87	.93	31.43			
	평가	실험사전	32	3.10	.82	31.09	467.0	-.19	.852
		통제사전	30	2.94	1.14	31.93			
권익의 한계 알고 요구	흥미 이해	실험사전	32	4.07	1.11	35.66	347.0	-1.92	.055
		통제사전	30	3.61	1.34	27.07			
	규칙과 원리이해	실험사전	32	3.66	.87	34.47	385.0	-1.36	.175
		통제사전	30	3.28	1.23	28.33			
	욕구와 권리주장	실험사전	32	3.34	.69	33.09	429.0	-.73	.465
		통제사전	30	3.20	.85	29.80			
	대안 제시	실험사전	32	3.19	.59	30.05	433.5	-.67	.506
		통제사전	30	3.22	1.11	33.05			

2. 사전-사후검증

자율적 행동의 3대 영역의 사전-사후 결과 <표 6>과 같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비교한 결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자율적 행동 3대 영역의 변화

구분	실험집단								통제집단								
	N	M	SD	음의 순위 (평균순위)	양의 순위 (평균순위)	동률	Z	p	N	M	SD	음의 순위 (평균순위)	양의 순위 (평균순위)	동률	Z	p	
거시적 맥락	사전	32	3.48	.43	15	15	2	-1.050	.294	30	3.37	.50	15	12	3	-.373	.709
	사후	32	3.59	.48	(12.10)	(18.90)				30	3.35	.46	(13.83)	(14.46)			
목표와 과제 수립	사전	32	3.16	.73	11	17	4	-1.128	.259	30	2.99	1.05	12	17	1	-1.287	.198
	사후	32	3.37	.47						(13.95)	(14.85)	30	3.32	.55			
권익의 한계 알고 요구	사전	32	3.56	.65	12	17	3	-1.266	.206	30	3.33	.78	13	15	2	-1.698	.090
	사후	32	3.77	.40						(13.25)	(16.24)	30	3.69	.42			

자율적 행동 3대 영역의 하위영역을 사전-사후 검증 결과 <표 7>과 같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비교한 결과, 실험집단의 경우 목표와 과제수립의 하위영역인 수행에서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권익의 한계알고 요구하기의 하위 영역인 욕구와 권리주장에서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통제집단의 경우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자율적 행동 하위 영역의 변화

구분	실험집단								통제집단									
	N	M	SD	음의 순위 (평균 순위)	양의 순위 (평균 순위)	동률	Z	p	N	M	SD	음의 순위 (평균 순위)	양의 순위 (평균 순위)	동률	Z	p		
거시적 맥락	체계이해	사전	32	3.41	.55	11	16	5	-1.103	.270	30	3.31	.70	12	14	4	-.293	.769
		사후	32	3.52	.61	(13.05)	(14.66)				30	3.39	.74	(13.67)	(13.36)			
	행동의 결과인지	사전	32	3.61	.66	9	14	9	-.047	.962	30	3.53	.54	13	9	8	-1.357	.175
		사후	32	3.61	.67	(15.50)	(9.75)				30	3.27	.69	(12.85)	(9.56)			
행동의 선택	사전	32	3.48	.47	13	18	1	-1.162	.245	30	3.35	.58	13	14	3	-.216	.829	
	사후	32	3.63	.55	(14.54)	(17.06)				30	3.35	.55	(15.23)	(12.86)				
목표와 과제 수립	목표 및 과제설정	사전	32	3.49	1.00	9	17	6	-1.099	.272	30	3.26	1.26	11	16	3	-.843	.399
		사후	32	3.75	.82	(14.72)	(12.85)				30	3.58	.76	(14.00)	(14.00)			
	계획수립	사전	32	3.07	.86	11	17	4	-1.039	.299	30	2.88	1.21	9	16	5	-1.200	.230
		사후	32	3.39	.73	(14.32)	(14.62)				30	3.21	.76	(13.11)	(12.94)			
수행	사전	32	2.98	.66	8	20	4	-2.103	.035	30	2.87	.93	14	15	1	-.835	.404	
	사후	32	3.28	.56	(13.94)	(14.73)				30	3.11	.66	(12.79)	(17.07)				

구 분	실험집단									통제집단								
	N	M	SD	음의순위 (평균 순위)	양의순위 (평균 순위)	동률	Z	p	N	M	SD	음의순위 (평균 순위)	양의순위 (평균 순위)	동률	Z	p		
평가	사전	32	3.10	.82	12	13	7	-.557	.577	30	2.94	1.14	9	15	6	-1.533	.125	
	사후	32	3.06	.49	(15.25)	(10.92)				30	3.37	.54	(10.72)	(13.57)				
흥미이해	사전	32	4.07	1.11	11	11	10	-.049	.961	30	3.61	1.34	6	10	14	-1.822	.068	
	사후	32	4.16	.61	(11.64)	(11.36)				30	4.13	.51	(5.50)	(10.30)				
권익의 한계	규칙과 원리이해	사전	32	3.66	.87	13	11	8	-1.114	.265	30	3.28	1.23	11	15	4	-1.224	.221
	사후	32	3.89	.58	(8.54)	(17.14)				30	3.78	.57	(11.59)	(14.90)				
육구와 권리주장	사전	32	3.34	.69	8	21	3	-2.005	.045	30	3.20	.85	8	18	4	-1.655	.098	
	사후	32	3.67	.59	(15.69)	(14.74)				30	3.52	.69	(13.81)	(13.36)				
대안제시	사전	32	3.19	.59	9	19	4	-1.695	.090	30	3.22	1.11	13	14	3	-.072	.942	
	사후	32	3.39	.67	(14.33)	(14.58)				30	3.34	.72	(14.31)	(13.71)				

V.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자율적 행동 프로그램을 개발 및 효과 검증에 있다.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율적 행동 3대 영역의 사전 동질성 검증 결과 거시적 맥락, 목표와 과제 수립, 권익의 한계를 알고 요구하기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율적 행동 3대 영역의 하위요인도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비교한 결과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 사전-사후 검증 결과 실험집단의 경우 목표와 과제수립의 하위영역인 수행에서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권익의 한계알고 요구하기의 하위영역인 육구와 권리주장에서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통제집단의 경우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영역에서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의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참가자(청소년) 모집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학교와 연계하여 대상자 모집하는 과정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본 프로그램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모집이 되었기 때문에, 참가자들이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상이한 문제점이 있었다. 청소년들의 경우 본 활동에 참여할 경우 봉사시간이 주어진다든가 하는 부분에만 많은 매력을 가지고 참여 하였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1회기(3시간) 활동을 운영하고 약 2/3의 청소년들이 활동을 포기하였고, 새로운 대상자를 선발하게 되었다.

둘째,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실천에 한계가 있었다. 활동 후 청소년들의 소감을 분석해 보면 환경에 대한 문제를 발견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부분에서 매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셋째, 효과성 측정도구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자율적 상호작용을 측정하는 질문의 구성들이 변별력이 떨어진다. 장·단기적인 활동시간, 참여자구성에 대한 고려, 해결하고자하는 문제 등을 반영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자율적 행동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계별 프로그램 구성이 필요하다. 즉, 1단계, 2단계, 3단계 등으로 구성하여 쉬운 단계부터 어려운 단계로 구분하여 청소년들에게 제공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단계적 접근은 하나의 역량으로 구성된 내용을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즉, 자율적 행동의 구체적인 하위요인들을 구체적으로 나눌 필요성이 있다. 또한 실천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취경험을 통해 실천능력이 개발될 수 있으므로 성취경험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교육혁신위원회(2007). 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 서울: 교육혁신위원회.
- 권일남·김태균(2009). 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청소년활동영역구성에 관한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제6권 제3호, pp. 67~89.
- 곽병선(2001). 국민기본교육 단계 인적자원의 기초소양증진방안.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 김기현·김지연·장근영·소경희·김진화·강영배(2008).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기현·맹영임·장근영·구정화·강영배·조문흡(2009).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II: 자율적 행동 영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혜은·이진순(2006). 한국과 독일 청소년의 정서적 자율성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제19권 제2호, pp. 21-40.
- 남현미(1999). 가족의 심리적 환경과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친구특성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희숙·하정희(2007).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수준과 정서적 자율성이 청소년의 분노표현방식과 비행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제18권 제2호, pp. 89-110.
- 소재희(2003). 인지양식이 문제해결 전략선택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현성(1985). 수학적 문제해결 과정의 분석 및 풀이 방법의 탐색. 강원대학교 논문집, 제22집, pp. 115.
- 원연경(2010). 조절초점이 충동과 자기조절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은희(1991). 기혼자녀의 부모에 대한 애착 및 자율성 발달유형과 결혼만족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박사학위논문.
- 이광중(2003). 이익의 정치·행정이념 및 개혁정책. 한국행정사학지, 제13호, pp. 29-58.
- 이수정(1997). 하이데거의 현상학, 한국하이데거학회 편 하이데거의 철학세계. 서울: 철학과 현실사.
- 천세영(2009).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교육 개혁 방안. 미래기획위원회.

- Pound, W. F. (1969). The Process of problem founding. *Industrial Management Review, Vol. 11 No. 1*, pp. 1-19.
- Kahney, H. (1986). *Problem solving: A cognitive approach*. Milton Keynes, Philadelphia; Open University Press.
- OECD (2004). *Problem solving for tomorrow's world: First measures of cross-curricular competencies from PISA 2003*. Paris: OECD.
- Blos, P. (1979). *The adolescent passage*.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Greenberger, E. (1984). Defining psychosocial maturity in adolescence. In P. Karloy & J. Srefen (Eds.), *Adolescent behavior disorders: Foundations and contemporary concerns*(pp. 54-81). Lexington, MA: Health.
- Havinghurst, R. (1948). *Developmental Tasks and Education*. McKay, New York.
- Steinberg, L. & Silverberg, S. B. (1986). The vicissitudes of autonomy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Vol. 57*, pp. 841-851.

ABSTRACT

The Development of a Youth Key Competencies Program and its Effectiveness

Kwon, Il-Nam* · Kim, Tae-Kyu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 autonomous behavior program and measure its effectiveness.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the comparison of those adolescents who participated in and who did not participated in the autonomous behavior program indicated that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any areas among the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program.

Second, the pre-and post-test by area revealed that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erms of goals and performance, which falls into the subarea of task setting, for the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program. In addition,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desire and right-claiming, which are the sub-areas of the 'claiming right by knowing its limitation'. In contrast,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as observed in any areas among the students who did not participate in the program.

Key Words : Autonomous Behavior, youth competency, youth activity,
Program Development

투고일 : 3월 14일, 심사일 : 5월 12일, 심사완료일 : 5월 20일

* Myong Ji University

** SungSan Hyo Graduate University